

KAIST, 반도체국제학술대회 ‘금메달’

아시아 최초 논문 최다 채택 기관으로 뽑혀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반도체 학술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고체회로학술대회(ISSCC)에서 KAIST가 인텔·IBM 등 쟁쟁한 반도체 기업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최다 논문 채택 기관’이 됐다.

ISSCC 아시아 위원장인 유희준 KAIST 교수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개최되는 ISSCC 2011 논문심사 결과, KAIST 논문이 총 9편이 채택돼 7건에 그친 인텔·도시바 등을 제치고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 논문 최대 기관이 됐다”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일 것”

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4면

KAIST는 아날로그 분야 2편, 무선통신 분야 2편, 에너지 효율디지탈 분야 2건, 차세대 기술 분야 2건 등 총 9편의 논문이 채택됐다. KAIST에 이어 인텔·도시바·IMEC(유럽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7건의 논문이 채택됐으며 삼성전자는 IBM·브로드컴 등과 함께 6건의 논문이 통과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총 22편의 논문이 채택돼 국가 순위로는 지난해와 같은 3위지만 2위인 일본(24편)과의 논문 수 차이는 크게 감소했다”며 “미국과 유럽의 논문 수는 줄어드는 반면 아시

아 지역 논문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7편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한국·네덜란드(17편)·대만(14편) 순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전체 ISSCC 논문의 절반까지 차지했지만 점차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와 대만에도 쫓기는 신세가 됐다.

ISSCC는 1954년부터 시작된 반도체분야 학술대회로 올해로 58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3000여명의 학계·기업·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 반도체 설계 분야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행사다. 내년 행사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이사람 / 유희준 KAIST 교수

“일본과 채택 논문 수 격차 줄어드는 게 고무적”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비록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이번 국제고체회로학술대회 2011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성과는 작은 불씨를 피운 셈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향후 2, 3년 뒤 산업계로 퍼져 가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와 헬스케어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꼽히는 유희준 KAIST 교수는 내년 미국에서 개최될 국제고체회로학술대회(ISSCC) 2011' 성과에 고무돼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KAIST가 이번 행사에서 총 9편의 논문이 채택돼 인텔(7편) 등 내로라하는 기업, 연구소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최다 논문 채택기관이 된 데다가 우리나라 전체 논문 수(22편)도 일본(24편)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채택 논문 차이는 10편에 이르렀다. 논문도 메모리 일색

에서 아날로그, RF, 무선, 유선 등으로 다양화된 것도 고무적이다. 유 교수 연구실에서는 이번 ISSCC에서 3편의 논문이 채택됐다. ISSCC는 제출된 논문의 30% 정도만을 채택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한다.

25일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기자 대상의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 유 교수는 ISSCC 아시아위원장 자격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교수는 “일본 간담회에서는 참석할 현지 기자들이 ‘KAIST 대단하다’고 임지를 치켜세웠으며 대만은 대만 국립대총장, 대만교통대 총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유 교수는 ISSCC 2011 논문심사 결과 반도체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올해 MIT에서 1500명의 석사를 모집했는데 미국 지원자가 적어 한

국 학생만 250여명을 받았다고 한다”며 “전 세계적 이공계 기피 현상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사정이 낫은 편”이라고 말했다. 논문 측면에서도 한국이 논문의 질과 양에서 계속 개선되는 만큼 이런 인재들이 기업으로 배출되면 더욱 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행정원 산하 과학재단에서 내년 투자할 가장 큰 프로젝트 반도체 SoC(시스템온칩)분야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간 대만정부의 투자에 힘입은 시스템반도체 성공 결과에 고무돼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학계에서는 작은 불꽃을 살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이를 큰 불로 키우는 것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라며 “아직은 열악하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꼭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